

거리의 이단아에서 천재화가로 바스키아의 독창적 예술세계



Old Cars, 1981, Acrylic, oil stick, and paper collage on canvas, 121.9×120.3cm

미국의 천재 미술가 장 미셸 바스키아(1960~1988)는 흑인 정체성이 묻어나는 혁신적인 작품으로 ‘검은 피카소’로 불렸다. 그는 인종이라는 잣대를 거부하며 “나는 한낱 인간이 아니다. 전설이다”라고 당당히 외쳤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아이티인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바스키아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다. 1977년부터 뉴욕 소호 거리 벽에 낙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그룹 세이모(SAMO)를 결성해 활동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팝아트 부흥과 함께 뉴욕 화단 중심부로 진입해 스타 작가가 됐으나 코카인 중독으로 요절했다. 8년간의 짧은 활동 기간 3천여점의 작품을 남긴 그는 20세기 시각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미셸 바스키아:거리, 영웅, 예술’전은 거리의 이단아였던 바스키아가 낙서를 예술로 승화해 이룬 독특한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폭 4m에 달하는 캔버스에 그린 대작 회화를 비롯해 조각, 드로잉 등 총 150여점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다. 어린이처럼 자유분방하면서도 거칠고 이질적인 이미지가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라피티로 시작한 바스키아는 회화에도 여러 단어와 문장, 다양한 이미지를 섞었다. 작품에는 왕관, 얼굴, 공룡, 동물, 자동차, 비행기, 뽀빠이를 비롯한 만화 캐릭터 등이 등장한다. 무질서하게 뒤섞인 글자와 이미지는 바스키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회 모순을 조롱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인종차별과 돈, 권력의 횡포 등에 저항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다양한 서사를 담아 관람객의 상상을 유도한다.

듀크 엘링턴 등 존경하는 음악인들의 노래 제목과 가사들로 구성된 작업,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비장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고 나서 본 책 ‘그레이의 해부학’에서 영향을 받은 인체 표현 등도 여러 작품에 나타난다. 바스키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주류 미술계에서 성공하도록 이끈 앤디 워홀과의 공동 작업도 소개된다.

바스키아는 각별한 관계였던 앤디 워홀이 1987년 사망하자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코트디부아르로 이주를 계획한다. 그러나 이주를 몇 새 앞두고 숨을 거뒀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거리 생활을 하다가 스타 화가가 된 바스키아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와 저항정신, 새로움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아있다.

전시일정(장소) 내년 2월 7일까지(롯데월드타워 롯데뮤지엄)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어린이 1만원
☎ 1544-7744

운보 아내 아닌 화가 박래현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한국화 거장이 된 운보 김기창(1913~2001)의 곁에는 삶의 동반자이자 예술적 동지였던 박래현(1920~1976)이 있었다. 그동안 ‘운보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더 많이 붙었지만, 박래현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다.

섬유예술이 막 싹트던 1960년대 선보인 태피스트리와 다양한 동판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970년대에 선보인 판화 작업은 20세기 한국 미술에서 선구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여성 미술가 박래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 ‘박래현, 삼중통역자’는 회화, 판화, 태피스트리 등 작품 138점과 아카이브 71점으로 김기창 아내가 아닌 예술가 박래현의 성과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서 ‘삼중통역’은 회화, 태피스트리, 판화라는 세 가지 매체를 넘나들었던 박래현의 예술 세계를 의미한다.

전시는 먼저 박래현이 일본에서 배운 일본화를 버리고 수묵과 담채로 당대의 미의식을 구현한 ‘현대 한국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단장’, ‘이른 아침’, ‘노점’이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또한 화가 김기창의 아내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로 살았던 박래현이 예술과 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모색했는지 살펴본다. 여성지에 실린 박래현의 수필에서도 생활과 예술 사이에서 고민했던 박래현을 만날 수 있다.

세계를 여행하고 이국 문화를 체험한 뒤 완성해 나간 독자적인 추상화도 전시된다. 1960년대 세계 여행을 다니며 박물관의 고대 유물들을 그린 스케치북 등이 독자적인 추상화의 완성 과정을 보여준다. 끝으로 판화와 태피스트리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동양화의 표현영역을 확장한 박래현의 마지막 도전을 조명한다. 타계 직전 남긴 동양화 다섯 작품, 판화와 동양화를 결합하고자 했던 시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박래현, 노점, 1956, 종이에 채색, 267x210cm, MMCA

전시일정(장소) 내년 1월 3일까지(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관람료 사전 예약 기간 중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
☎ 02-2022-0600



전라남도 나주시 국립 나주박물관 특설무대. 2015. 105X140cm, Archival Pigment Print

전국노래자랑 현장에서 포착한 대한민국 초상

강렬한 원색의 꽃무늬가 두드러지는 바지를 입고 양손 엄지를 치켜든 여성, 직접 제작한 듯한 조끼에는 도라지배추 팩이 줄줄이 붙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는 바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먼 곳을 응시하는 포즈를 취했다. 갈색 구두와 양복바지 사이로 드러난 흰색 양말의 스포츠 브랜드 로고에 자꾸 눈이 간다.

다소 과한 의상과 제스처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나지만, 어떤 인물사진 모델보다도 가식 없고 인간적인 모습들이다. 사진작가 변순철 개인전 ‘바람아 불어라, 전국노래자랑’은 전국 각지 국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KBS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출연자들의 초상사진을 소개한다. 작가는 훈련된 전문 가수들의 세련된 모습이 아닌 일반인 참가자들의 미숙함과 과도한 설정, 즉흥적 행위를 카메라로 잡아내고, 그 속에서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포착한다. 배경부터 의상, 조명 등을 철저히 연출한 초상사진과 달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기념사진 찍듯 담은 출연자들은 우리 이웃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변순철은 ‘전국노래자랑’ 참가자와 무대를 15년 이상 촬영했고, 이번 전시에는 2015년 이후 작업한 사진 중 8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처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망을 분출하려는 심리에 관심을 가졌는데 더 거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여러 사람의 초상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 인간의 본질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다니면서 본 것은 대한민국의 인간”이라며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에 대한 헌사 같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일정(장소) 12월 6일까지(광화문 성곡미술관)
관람료 성인 7천원, 어린이 3천원
☎ 02-737-7650



윤패하고 영리한 성장 드라마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모두가 ‘세계화’를 외치던 1995년, 읍지로 대기업에 다니는 고졸 출신 말단 여성 직원들이 토익 600점을 넘겨 대리로 진급하기 위해 회사 토익반에 모인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이들의 뻔한 성장담에 그치지 않는다. 윤패한 성장담 안에는 날카로운 사회 고발 드라마가 담겨있고 영리하게 줄을 타며 뺏어 나간다.

영화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느라 지루해지기 쉬운 초반부터 경쾌한 속도로 출발해 감동을 만들어내느라 늘어지기 쉬운 결말까지 명량한 리듬감을 유지한다. 사회 고발 드라마로서 집요하고 깊이 있게 사건을 파고들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전형적인 성장 드라마 플롯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의 매력으로 재미를 더한다. 만만치 않은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의를 믿는 작은 힘들이 모여 희망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낙관이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의, 각자의 현실을 곱씹어 보게 한다.

업무 능력은 출중하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청소와 커피 타기, 구두 배달과 담배 심부름을 하는 8년차 직원 자영(고아성), 유나(이솜), 보람(박혜수)은 토익 점수 600점을 넘기면 대리 진급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에 회사 토익반에 모인다. 상사들은 물론 한참 후배인 남자 직원의 뒤통자대려를 도맡고 있는 자영과 대졸 사원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유나, 천재적인 수학 실력으로 룰살롱 영수증 숫자나 맞추고 있는 보람은 대리로 승진해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진짜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을 하러 공장에 갔던 자영은 폐수 방류 현장을 목격하고, 특기인 오지랖으로 그냥 넘기지 못한다. 대리 후배를 구슬려 회사에 보고하게 하고, 현장을 조

사한 회사는 미량의 폐물이 발견됐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상금을 주며 무마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으러 다니며 심상치 않은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자영은 찔끔함을 묻어두지 않고 유나, 보람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재능과 기지는 물론, 부서마다 있는 여성 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진한다.

영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기 전,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던 시절이지만 그 예고편처럼 벌어지고 있었을 외국 자본이 얹힌 경제 범죄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대기업의 만행 같은 굼직한 사건부터 고졸 여성 직원에게 불편한 유니폼을 입혀 놓고 잡무와 감정 노동을 강요했던 사회 분위기, 내부 고발자가 처하게 되는 잔인한 현실까지도 짚지만, 인상적으로 담아낸다.

그렇다고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로 관객을 짓누르지 않는다. 다소 만화적인 캐릭터와 전개로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영화의 미덕이자 배우들의 힘이다. 주인공인 세 친구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조·단역까지 하나하나 빛난다.

감독 이종필
출연 고아성, 이솜, 박혜수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0월 21일

태양의 소녀들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만행으로 참극을 당한 야지디족 여성들이 총을 들고 맞서 싸웠던 실화를 다뤘다.

IS의 급습으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뺏긴 바하르는 성폭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동생을 부여잡고 절망한다. 이후 극적인 탈출로 목숨을 건진 바하르는 자신과 같이 포로였던 여성들로 구성된 부대 ‘걸스 오브 더 섀’을 이끈다.

제거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이다.



젊은이의 양지

채권 추심 콜센터 계약직 센터장 세연(김호정)은 업무 실적으로 자리를 위협받는다. 현장 실습을 하게 된 19살 준(윤찬영)은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연은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세상을 배우는 인생실습이라고 조언한다.

얼떨결에 카드 연체금을 받으러 갔던 준이 유서를 남긴 채 사라지고 변사체로 발견된 뒤 세연은 매일 같이 준으로부터 사건의 단서가 담긴 메시지를 받으며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에 다가간다.

감독 신수원
출연 김호정, 윤찬영, 정하담, 최준영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0월 28일



결후드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자 각본상을 받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국내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셀린 시아마 감독의 2014년 작품이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인기를 끌며 ‘통보이’(2011), ‘워터 릴리스’(2007)가 차례로 개봉한 데 이어 성장 3부작을 완성하는 ‘결후드’까지 시아마 감독의 전작 네편이 올 한 해 동안 모두 국내에 선보이게 됐다. 사회적 압력 속에 놓인 소녀들이 주인공인 ‘결후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마리엠이 운명처럼 세 친구를 만나 자신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감독 셀린 시아마
출연 카리자 투레, 아사 시라, 마리투 투레, 린지 카라모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12일

감독 에바 허슨
출연 골쉬프테 하라하니, 엠마누엘 베르코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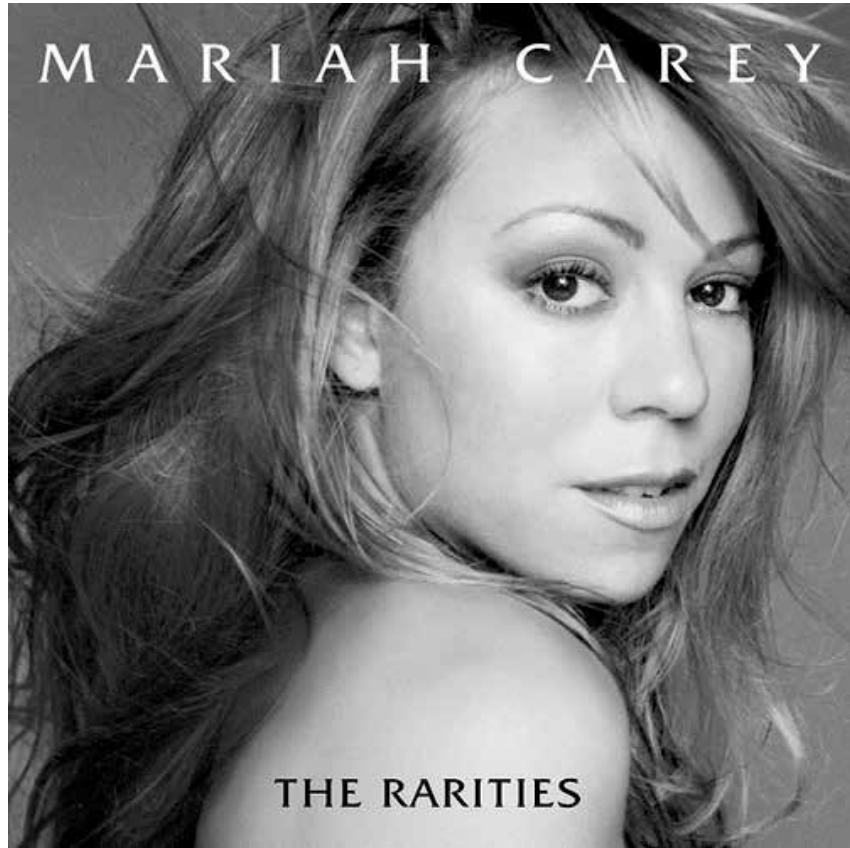


내가 죽던 날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진 소녀 세진(노정의)과 삶의 벼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현수(김혜수)의 이야기다. 여기에 무언의 목격자 순천택(이정은)이 손을 내민다.

세진의 행적을 추적해 가던 현수는 소녀가 홀로 감내했을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과 닮은 소녀에게 점점 더 몰두하게 되고,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다가선다.

감독 박지환
출연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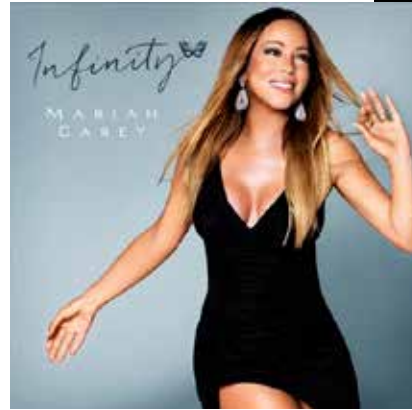
데뷔 30주년 맞은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0년, 미국 팝 시장을 뒤흔드는 가수가 나타났다. 여전히 ‘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머라이어 캐리. 속이 뽕 뚫리는 가창력, 5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쓰는 프로듀싱 능력까지. 한마디로 모든 걸 갖춘 신성의 탄생이었다. 캐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또 개인사적으로 부침도 겪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팝의 여왕이 되기까지

캐리는 1970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 이후 어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가난에 시달리며 13번이나 이사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발간한 자서전에서 “망가지고 해체된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피부색 때문에 중학생 시절 또래로부터 인종차별과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가수가 돼 수입이 생기자 가족들은 그를 “현금인출기 취급”하며 돈을 가져갔다. 캐리의 음악적 재능은 떡잎부터 달랐다. 어릴 적부터 가수를 꿈꿨다. 1988년 한 파티에 초대돼 갔다가 음반 업계 관계자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 데모 테이프를 건넸다. 소니 뮤직 사장이었던 토미 모틀라가 우연히 이 테이프를 듣게 됐고, 캐리를 찾아내 계약했다. 1990년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로 한 1집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무려 4곡을 올려놓았다. 평단의 극찬과 함께 그해 그래미상에서 신인상까지 받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전 오브 러브’가 바로 이 음반에 실린 곡이다. 이듬해 발표한 2집은 상업적으로 썩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타이틀곡인 ‘이모션스’만큼은 핫 100 정상을 차지했다. 2집이 주춤하며 캐리가 ‘소포모어 중후군’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웬걸 3집 ‘뮤직박스’는 초대박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장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장이 판매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승승장구하던 그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버진 레코드와 무려 8천만달러 계약을 맺은 뒤 발표한 영화와 앨범은 흥행 참패를 겪었다. 심지어 버진 레코드는 캐리에게 2천800만달러의 위약금까지 물어주며 이른바 ‘손절’을 했다.



그러나 산전수전 겪은 캐리에게 이 정도 위기는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됐다. 2008년 발표한 8집은 첫 주에만 4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자체 최다 판매 기록을 다시 썼다. 수록곡 ‘위 빌롱 투게더’는 14주간 핫 100을 지키며 그해 미국 최고의 인기곡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다음 앨범 E=MC²으로 이 기록을 또 썼다. 이후 캐리의 음반 성적은 좋다가 나쁘다가를 반복했지만, 미국 팝계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살아 있는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 지난해 빌보드는 머라이어 캐리를 올타임 여성 아티스트 중 1위로 꼽았다.

봉인 풀린 미공개곡 앨범...“아티스트로서 일관성 증명”

캐리는 데뷔 30주년을 맞아 미공개곡과 공연 라이브 음원으로 채운 기념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름부터 희귀한 곡만 들어 있을 것이 예상되는 ‘더 레리티즈’(The Rarities)다. 미공개 노래 중 캐리가 직접 선곡한 베스트 트랙 15곡과 첫 일본 공연인 1996년 도쿄돔 콘서트 라이브 음원 17곡을 두 CD에 나눠 담았다. 지난 몇 년간 데모 버전으로 온라인상에 떠돌던 ‘세이프 더 데이’도 완성해 수록했다. 푸지스의 ‘킬링 미 소프틀리 워드 히즈 송’을 샘플링했으며, 원곡에서 보컬을 소화한 로린 힐이 목소리를 더했다. CD 1에는 이 곡을 비롯해 신곡인 ‘클로즈 마이 아이즈’와 미발표곡 ‘히어 위 고 어라운드 어게인’, ‘썬 유 히어 미’, ‘아웃 히어 온 마이 온’

등이 실렸다. CD 2에는 캐리가 도쿄돔 콘서트에서 불렀던 히트곡 ‘이모션스’, ‘오픈 암스’, ‘원 스위트 데이’, ‘히어로’,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등이 수록됐다. 캐리의 도쿄돔 콘서트는 당시 많은 화제를 낳았던 전설적 공연으로, 실황 음원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전성기를 찍은 만큼 화려한 시절의 성적에 미치는 판매량을 거두진 못했지만, 쟁쟁한 젊은 가수 사이에서 빌보드 200 31위 진입이라는 꽤 괜찮은 성적표를 받았다. 평단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앨범을 두고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일관성을 증명했다”면서 “일본 공연 라이브 음원은 캐리의 초기 커리어를 위한 쇼케이스”라고 표현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곡이 강렬하면서도 캐리가 오랫동안 들려온 이야기를 뒷받침한다”며 “일본 공연은 캐리의 목소리와 대중적 명성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음악 팬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그래도 캐리의 음반인테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과 내한 공연 때의 ‘깡판’으로 인해 더는 쳐다도 보기 싫다는 쪽으로 양분된다. 캐리는 2003년과 2014년 서울을 찾았는데, 두 번 모두 비매너 공연으로 비난을 받았다. 2003년에는 무려 1시간 20분이나 ‘지각 공연’을 했고 다음 스케줄인 일본 콘서트를 위해 앙코르 요청을 거부했다는 논란도 나왔다. 2014년 당시에는 고음 부분을 저음으로 처리하고, 노래가 끝나기 전에 무대를 내려가기도 했다.



국내 초연 1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국내 초연 10주년을 맞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가 올해 다섯번째 시즌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몬테크리스토'는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 에드몬드 단테스가 그의 약혼녀를 탐낸 친구와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흉계로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이들을 파멸시키는 이야기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드라마틱한 극의 전개와 환상적이고 통쾌한 복수극이 볼거리다. 특히 손가락을 이용해 땅굴을 파는 명장면을 비롯해 무대에 거대한 뱃머리와 펼쳐지는 새하얀 돛을 설치해 관객들이 항해에 함께하는 듯한 연출이 돋보인다. 10주년 공연은 앞선 시즌보다 한층 더 화려해진 무대와 웅장한 스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도 갖추고 있다.

음악 역시 관객들을 압도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이 곡을 썼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로 꼽히는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쓴 작곡가다.

젊은 단테스가 14년간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변신해 복수하는 과정을 엄기준, 카이, 신성록이 연기한다. 감옥에 끌려간 그를 기다리는 메르세데스 역에는 옥주현, 린아, 이지혜가 캐스팅됐다

공연일정(장소) 11월 17일~2021년 3월 7일(LG아트센터)
관람료 6만~15만원
☎ 02-6391-6333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이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8년 국내 초연 이후 2년 만에 재연이다. 극은 가난하게 살아온 '몬티 나바로'가 어느 날 자신이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백작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른 후계자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내용이다. 다이스퀴스 역은 후계자 9명의 역할을 1인 9역으로 혼자 소화한다. 오만석, 이규형, 정상훈, 최재림이 캐스팅됐다.

공연일정(장소) 11월 20일~2021년 3월 1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관람료 6만6천~11만원
☎ 02-3485-8700



뮤지컬 '그날들'

국내 대표 창작뮤지컬인 '그날들'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2013년 초연한 '그날들'은 고 김광석 대표곡에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엮어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20년 전 사라진 '그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다.

초연 이후 지금까지 50만명이 공연을 관람하며 창작뮤지컬로서는 독보적인 흥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경호부장 정학 역은 유준상, 이견명, 정성화, 민우혁이 맡았다.

공연일정(장소) 11월 13일~2021년 2월 7일(충무아트센터)
관람료 5만~14만원
☎ 02-541-7152



피아니스트 조성진, 2년 9개월 만에 독주회

클래식계 ‘블루칩’ 피아니스트 조성진(26)이 2년 9개월 만에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 무대에 오른다. 조성진은 10월 28일 광주에서 전국 투어를 시작해 11월 9일까지 이어간다. 서울 무대는 11월 4일에 열린다.

협연 등이 아닌 독주회는 2018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당시 첫 전국 투어에 나선 조성진은 부산·서울·전주·대전 등 4개 도시에서 베토벤 소나타 8번·30번과 드뷔시 영상 2집,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선보였다.

조성진은 원래 올해 5월 ‘방랑자’ 앨범 발매를 맞아 7월 1~15일 서울 등 7개 지역을 돌며 전국 투어를 하고자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우려해 취소했었다. 이번에는 28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30일), 부산(11월 1일), 창원(11월 3일), 서울(11월 4일), 춘천(11월 9일) 등 6개 도시에서 총 9회로 진행된다.

조성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듯 공연 티켓은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매진됐다. 독일 베를린에서 귀국한 조성진은 2주간의 자기가격리를 마치고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독주회 때와 달

리 이번에는 따로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 관객들과 모처럼 다시 만나는 만큼 공연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조성진의 생각이다.

공연에서는 슈만의 ‘유모레스크’와 ‘숲의 정경’, 시마노프스키의 ‘마스크’,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연주한다. 특히 유모레스크는 조성진이 17살이던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연주한 뒤 정확히 9년 만에 다시 연주하는 곡이라 관객들은 조성진이 이번에는 어떻게 곡을 해석해낼지 궁금해하고 있다.

방랑자 환상곡은 올해 새로 낸 앨범의 메인 수록곡이다. 그는 음반 소개에서 “이 작품은 다른 무엇보다도 환상과 상상, 그리고 아티스트의 자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연일정(장소) 10월 28일~11월 9일(서울 예술의전당 등)
관람료 3만~11만원
☎ 02-318-4301

제41회 서울무용제 개막…온라인 생중계·수화통역

2020 ‘제41회 서울무용제’가 11월 4~20일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전 프로그램 온라인 생중계와 수화통역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관객을 맞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거리두기 객석’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 전 공연을 유튜브와 네이버TV로 볼 수 있다.

개막공연 ‘무념.무상.’ 파트1에서는 지난해 11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양성옥(태평무)·양길순(살풀이춤)·박재희(태평무)·채상묵(승무) 등 명인 4명의 무대가 펼쳐진다. 6일 ‘무념.무상.’ 파트2에는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등 순수 무용계를 이끌어온 장르별 여성 안무가인 김지영·장현수·이경은·차수정 4명이 무대에 오른다.

8일 ‘명작무극장’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으나 후대에 전승할 만한 작품들을 모은 자리다. 조택원의 ‘가사호접’, 김진걸의 ‘산조’, 최현류의 ‘비상’, 조흥동의 ‘한량무’, 은방초의 ‘회상’ 등이 준비됐다. 이 밖에 중견 무용가와 차세대 안무가 및 지역 대표 명인들의 춤이 이어지는 ‘출판 시리즈’, 올해 국내 최고 안무가를 가리는 ‘경연 부문’ 프로그램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11월 4~20일(아르코예술극장)
관람료 2만~4만원
☎ 02-3668-0007



‘천재’ 피아니스트 임주희, 서울시향과 협연

천재’ 수식어가 붙는 피아니스트 임주희(20)의 이력은 화려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0년 러시아 백야의 별 페스티벌 무대에서 데뷔했는데, 당대의 거장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협연자로 낙점했다. 지휘자 정명훈과는 2014년부터 13차례에 걸쳐 협연했다. 피아노 무대에 선 지 10년째인 그는 올해 포브스 코리아의 ‘2030 차세대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임주희는 올해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쇼팽 ‘발라드 1번’과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했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가 11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향과의 협연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를 떠올리게 하는 이 곡은 쇼스타코비치가 아들을 위해 작곡했다.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느낌을 준다.

지휘는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인 오스모 벤스케가 맡는다. 관객들은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3번과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일정(장소) 11월 20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1만~7만원
☎ 02-3700-6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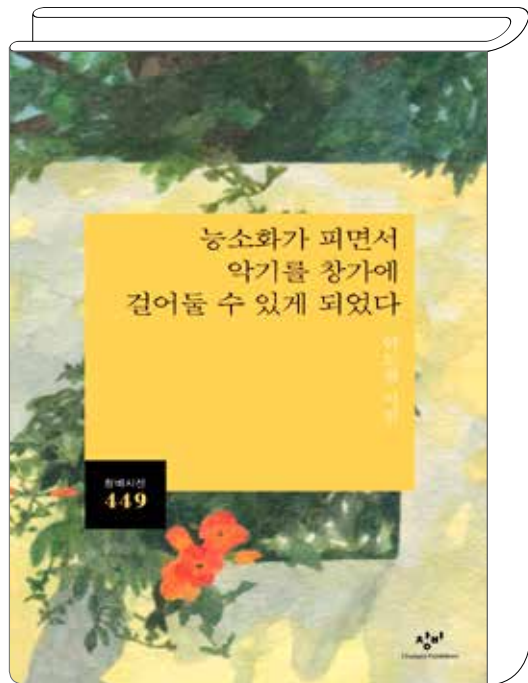
1933년 미국 뉴욕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난 수전 손택은 1962년 '파르티잔 리뷰'에 에세이를 발표하고 이듬해에 첫 소설 '은인'을 출간하면서 정신의 삶과 문학적 야망을 위한 '수전 손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스스로를 열광적인 탐미주의자이자 완고한 도덕주의자라고 했던 손택은 엄격한 지성주의에 입각해 전후 비평계가 공유하던 틀을 깨부수고 기존에 확립됐다고 믿었던 분류를 전복하며 일평생 날카로운 질문과 결정적인 금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책은 2004년 타계한 손택의 사후에 나온 첫 평전으로, 일대기를 중요 분기점에 따라 연대순으로 그리며 그가 완성코자 했던 문학가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조명한다.

다니엘 슈라이버 지음/ 한재호 옮김/ 글항아리 펴냄/ 500쪽/ 2만5천원

동영상 웹사이트 '비메오'(VIMEO)의 공동 창업자인 자크 클라인은 2010년 숲속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캐빈 폰'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손수 지은 집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간 '캐빈 폰'은 도서로도 출간되어 전 세계 7개국에서 30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캐빈 폰'의 후속작인 '캐빈 폰 인사이드'는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직접 지은 숲속의 작은 집 내부를 안락하게 꾸며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한다. 책장마다 숲, 강가, 산 정상 등에 자신이 꿈꿔온 집을 직접 짓는 '자연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자크 클라인(기획), 프리다 문 지음/ 강경이 옮김/ 판미동 펴냄/ 336쪽/ 2만8천원



안도현 지음/ 창비 펴냄/ 108쪽/ 9천원

2013년 절필 선언을 하고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인 안도현이 오랜만에 본업인 시의 세계로 돌아왔다. '북향' 이후 8년 만에 펴내는 11번째 시집이다. 그는 이번 시집을 화초, 식물, 어머니, 고모 등 일상의 정겨운 것들을 소재로 쓴 서정시로 채웠다. 40년 만에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돌아가 터전을 잡은 영향일지도 모른다. 4년간의 절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시심(詩心)의 불이 무더져지는 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다. 세상을 늘 새롭게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과 그동안 겪어온 '인생살이의 깊이와 넓이'가 오롯이 담긴 정결한 시편들이 가슴을 깊이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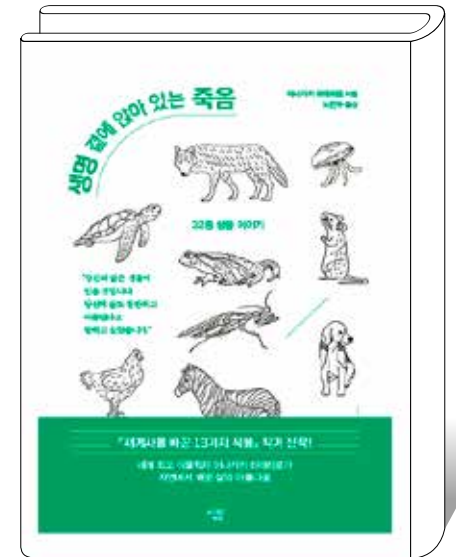
과잉의 시대에 너무 많은 물건으로부터 해방된 오스트리아 작은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의 도전기. 10년 전 시작한 '플라스틱 없는 생활' 도전은 '쓰레기를 거절하는 삶'의 실험으로 발전했다. 책에는 실험이 삶으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먹고 입고 움직이는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여나가는지, 선택의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지 그 과정이 담겼다. 이웃과 공동으로 소유한 '반쪽짜리' 차를 타고 떠난 여름휴가에서 느낀 '물건으로부터의 해방감', '2+1' 판촉에 휘둘리지 않고 절반만 채운 냉장고로 가벼워진 이야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드라 크라우트바울 지음/ 박종대 옮김/ 양철북출판사 펴냄/ 252쪽/ 1만5천원



이언 매큐언 지음/ 민승남 옮김/ 문학동네 펴냄/ 528쪽/ 1만6천800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뿐 아니라 치열한 문화 전쟁을 벌였다. 문화 진지전에서 우위를 점해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사실이 역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다. 당시 소련과 미국은 유럽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문화예술 사업에 뒷돈을 대는 동시에 '소프트 파워' 전사'를 양성해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 했다. 1967년 유럽을 떠돌썩하게 한 '인카운터' 사건은 이런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 반공 잡지인 '인카운터'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금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눈여겨보며 구상을 거듭해온 현대 영미 문학 거장 이언 매큐언은 결국 이를 모티브로 소설을 써냈다. 2012년 발표했던 장편 '스위트 투스'다. 최근 문학동네가 민승남의 번역으로 국내에 출간했다.



이나카기 히데아키 지음/ 노만수 옮김/ 살림 펴냄/ 236쪽/ 1만5천원

이 책은 식물학자가 자연에서 길러 올린 삶과 죽음에 대한 영감이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식물학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 인문학적 생사학(生死學)이랄까. 일본의 농업 생태학자이자 잡초 과학자, 농업 연구자인 저자는 바다, 강, 육지, 하늘에 서식하는 32종 생물들이 자연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그린다. 곤충 13종, 해양 생물 6종, 포유류 8종, 떠살이생물 2종, 조류·파충류·양서류 각 1종씩 다루며 그 생활 방식과 진화 과정, 번식과 죽음 과정을 살핀다. 저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죽음의 방식이 곧 번식의 실패임을 알려준다. 평생 생태계를 탐색해온 연구자만이 해낼 수 있는 세밀한 묘사로 생물의 마지막 순간들을 감동적으로 전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시민에 개방…20개 전시원 식물 172만그루 식재

글 유익주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제공]

세종시 중앙에 자리 잡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8년간의 사업 준비와 공사를 마치고 10월 17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이은 세 번째 국립수목원인 세종수목원은 면적이 65ha로 축구장 90개 규모다.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원에 2천834종, 172만 그루의 식물이 식재됐다.

관람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이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시범 운영 기간인 12월 31일까지 무료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시 입장 관람객을 5천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과 소독, 발열 검사장비 운용과 거리 두기, 한 방향 관람 동선 유도 등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사계절 전시 온실은 수목원 홈페이지(sjna.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같은 시간에 3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전망대 끝 그네 타면 바다로 ‘아찔’…남해스카이워크 개장

글 지성호 기자



경남 남해군에 다도해 경관과 유리 바닥을 통해 30여m 아래 해안 절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섰다.

남해군은 미조면 송정리 산 352-4, 공유수면 일대에 83억원으로 남해 설리스카이워크 설치공사를 벌여 최근 준공했으며, 보완한 뒤 11월께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망대인 설리스카이워크는 공유수면 36m 높이에 폭 4.5m 길이 79m의 구조물이다. 끝부분에는 유리 바닥으로 아찔한 해안절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백미는 전망대 끝부분에 설치된 그네다. 그네를 타면 푸른 하늘과 바다의 품으로 뛰어드는 듯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다. 경관조명이 설치돼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으며 포토존,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들어섰다.

인근 해변에는 대명소노그룹의 브레이크힐스 리조트가 건립 중이어서 설리스카이워크가 개장하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남해군은 기대하고 있다.

해운대 해변 친환경 관광열차 달린다

글 조정호 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인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해수욕장에 이르는 4.8km 구간 철길을 왕복 운행하는 해변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 4.8km 구간 옛 동해남부선 철도 시설을 재개발해 10월 7일부터 해변열차 운행에 들어갔다.

‘해운대 해변열차’는 해안 절경을 감상하면서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관광 열차다. 배터리 충전방식으로 운행하는 친환경 열차로, 시속 15km 속력으로 운행한다. 소요 시간은 왕복 기준 1시간이다. 평일

은 30~40분 간격, 주말과 성수기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해변열차와 함께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핵심 관광시설인 스카이 캡슐은 11월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스카이 캡슐은 해운대 미포~청사포 2km 구간 높이 10m 레일 위에서 해안 절경을 감상하는 관광시설이다.

공중 레일 위에서 전기 동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운행되는 스카이 캡슐에서는 동백섬, 광안대교, 이기대, 오륙도 등 아름다운 부산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통영 대표 관광지 남망산 공원 ‘빛의 정원’으로 재탄생

글 이정훈 기자



[통영시 제공]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남해안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경남 통영시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통영 대표 관광지인 남망산 공원을 ‘빛의 정원’으로 만드는 ‘남망산 디지털 파크’(디피파크)가 10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피파크는 ‘비탈’의 통영 사투리다. 디피파크는 벽화마을로 유명한 통영 동피랑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남망산 공원에 재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남망산 공원은 시민문화회관, 조각공원이 있으면서 시가지와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온 항구인 ‘강구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통영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가 지면 남망산 공원 자체가 ‘빛의 정원’이 되도록 꾸몄다. 시민문화회관 벽면은 건물 벽면에 영상을 투사해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활용해 거대한 ‘빛의 캠퍼스’로 바뀐다. 남망산 공원 산책로 1.5km는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각종 디지털 조명기술을 활용해 반짝이는 숲, 신비한 폭포 등 15개 테마가 있는 산책로로 거듭난다.

디지털 산책로는 유료로 운영한다.